

ISSN: 2800-051X

HankookResearch

한국리서치 주간리포트(제189-3호)

여론속의 여輿론論

별난리서치: 이름과 성명학(姓名學)에 대한 인식

2022. 07. 20.

담당자 이소연 연구원

전화 | 02-3014-1062

e-mail | lee.sy@hrc.co.kr

한국리서치 주간리포트

- 한국리서치가 기획하고 운영하는 자체 조사입니다.
- 격주로 시행하는 정기조사입니다.
- 특정 의제를 다각도로 조사하고 분석하는 심층 여론조사입니다.
여론의 현상과 함께 흐름을 추적하고, 여론 속의 민심을 파악하고자 합니다.
- 정기지표-기획조사 등으로 구성합니다.
- 정기지표는 국가, 사회, 개인과 관련한 국민들의 인식 추이를 제시합니다.
- 기획조사는 한국리서치 연구원이 기획하고 분석합니다. 주제에 따라 외부 전문가와 함께 기획하고 분석 및 보도를 함으로써, 여론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에디터들에게 문의하여 주십시오.

운영책임

이동한 차장

전화 | 02-3014-1060
e-mail | dhlee@hrc.co.kr

연구진

정한울 전문위원

전화 | 02-3014-1057
e-mail | hw.jeong@hrc.co.kr

이소연 연구원

전화 | 02-3014-1062
e-mail | lee.sy@hrc.co.kr

1 현재 이름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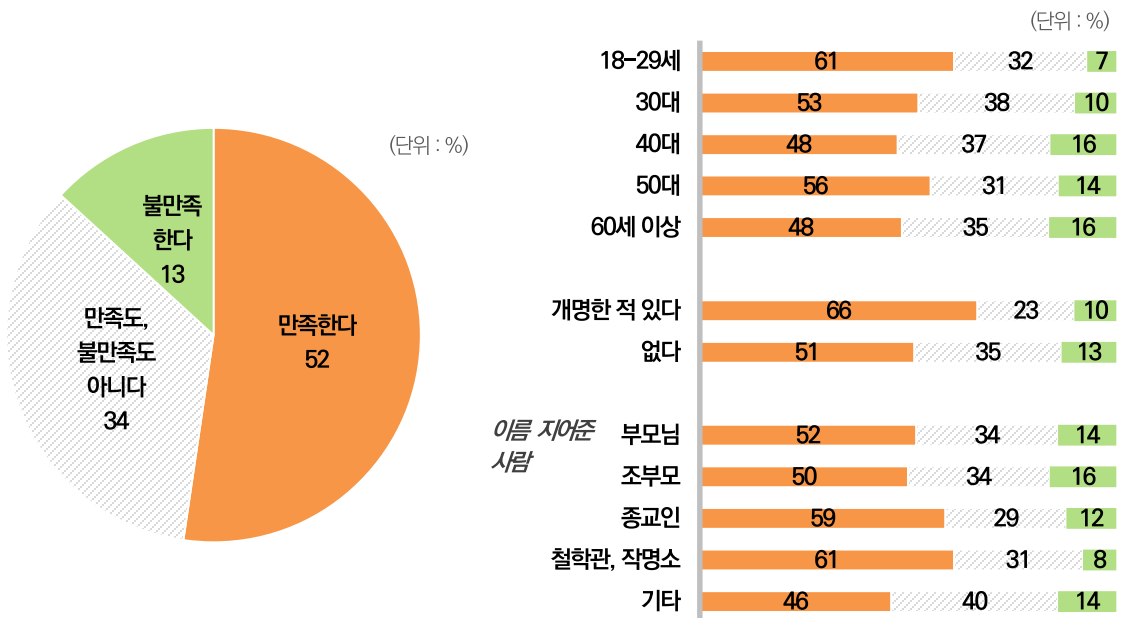
응답자 절반 이상(52%), 현재 이름에 만족하고 있어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 절반 이상(52%)은 현재 자신의 이름에 만족하고 있었다. 만족도, 불만족도 아니라는 응답은 34%였고 불만족한다는 응답은 13%에 그쳤다. 10명 중 9명 정도가 본인의 이름에 보통 이상의 만족도를 갖고 있었다.

본인 이름에 만족도가 높은 사람들은 누구일까? 개명 경험이 있는 응답자 중에서는 66%가 현재 본인의 이름에 만족한다고 답했다. 이전 이름에 만족하지 못해 개명을 했고 개명 과정에서 본인의 의향을 반영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개명한 이름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부모님(만족한다 52%)이나 조부모님(50%) 등 가족이 이름을 지어 준 경우보다는, 종교인(59%)이 이름을 지어줬거나 철학관·작명소에서 이름을 받은 사람(61%)의 만족도가 다소 높은 것도 흥미로운 지점이다.

응답자 절반 이상(52%), 현재 이름에 만족하고 있어

개명 경험 있는 응답자의 66%, 철학관·작명소에서 이름을 받은 응답자의 61%가 본인 이름 만족한다고 답해



질문: 본인의 현재 이름에 만족하십니까?

응답자 수: 1,000명

조사기간: 2022. 06. 17. ~ 06.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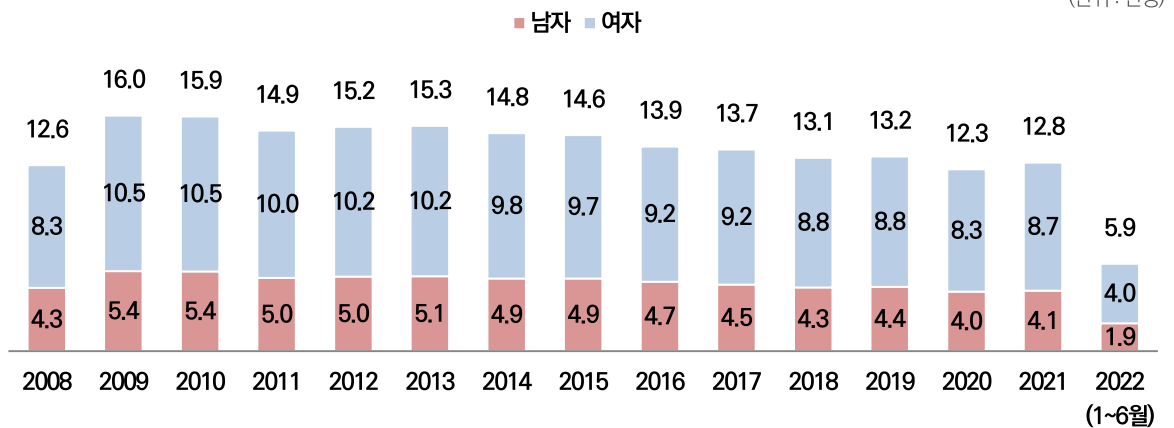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2 개명 경험과 의향

10명 중 1명(7%), 개명을 한 적 있어 3-40대 중년층, 10명 중 1명 개명 의향 있어

2005년 11월 대법원이 개명을 폭넓게 인정한 이후, 개명신청 건수가 크게 늘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2008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개명 신청 건수는 총 204만여 건이다. 2009년 16만여 건을 기록한 이후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기는 하지만, 지난해에도 12만 8천여 명이 개명을 신청하였다. 개명 허가율이 95%에 이른다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 국민 100명 중 4명이 2008년 이후 이름을 바꾼 셈이다. 개명을 신청하는 사람 중 2/3가 여성으로, 개명을 신청하는 여성이 남성보다 두 배 가량 많은 것도 특징이다.

2008년 이후, 연도별 개명 신청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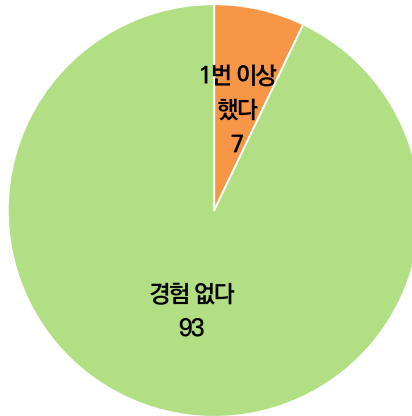
출처: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통계서비스, 연도별 성별 개명 현황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on.co.kr)

이번 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의 7%가 공식적으로 개명을 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또한, 응답자의 10%가 앞으로 개명을 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특히 30대(16%)와 40대(13%) 중년층의 개명 의향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미 공식적으로 개명한 적이 있는 응답자 10명 중 1명(12%)도 개명 의향이 있다고 답했고, 본인의 현재 이름에 불만족하는 사람 중에서도 40%가 개명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개명 신청 절차가 간편해졌고 허가율 또한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개명을 신청하는 사람의 수는 일정 기간 동안 현재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10명 중 1명(7%), 개명을 한 적 있어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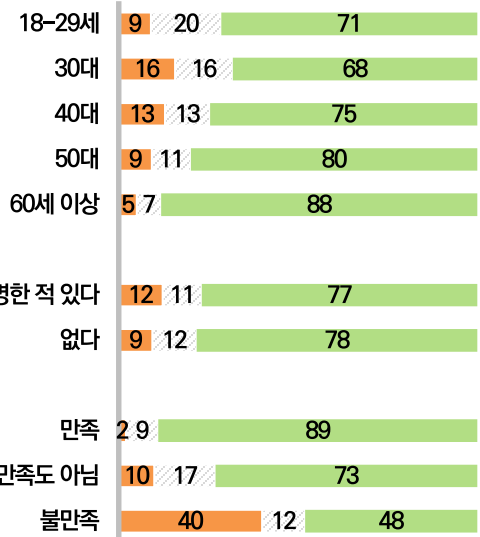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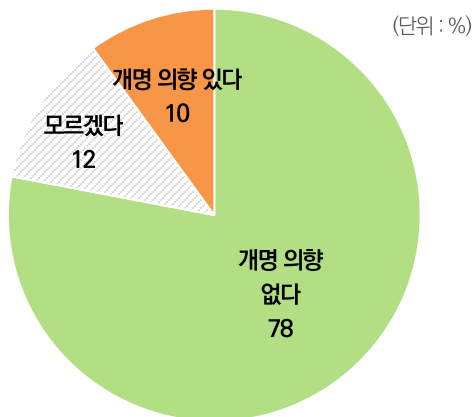
질문: 공식적으로 개명을 한 경험이 있습니까?

응답자 수: 1,000명

조사기간: 2022. 06. 17. ~ 06. 20.

3-40대 중년층 10명 중 1명, 본인의 현재 이름에 불만족하는 사람 10명 중 4명 '개명 의향 있어'

(단위 : %)



질문: 앞으로 개명을 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응답자 수: 1,000명

조사기간: 2022. 06. 17. ~ 06. 20.

3 이름 짓는 방식에 대한 선호도

자녀가 여럿일 때, 돌림자 정할 필요 없어(63%) 성별 구분이 가능한 이름을 선호(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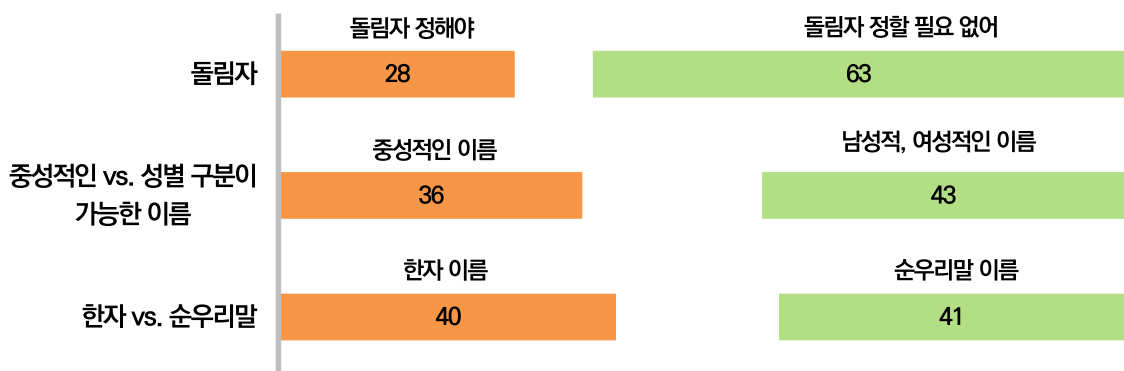
이름을 짓는 다양한 방식에 관한 생각을 물었다. 우선 첫 번째로, 자녀가 여럿일 때 돌림자가 필요하지 물었다. 과반 이상이 ‘돌림자로 정할 필요가 없다(63%)’고 답했고, ‘자녀가 여럿이라면 돌림자를 정하는 게 좋다’는 응답은 28%에 그쳤다. 60세 이상에서도 돌림자를 정하는 게 좋다는 응답(39%)보다 돌림자를 정할 필요는 없다는 응답(54%)이 더 높았다. 과거에는 같은 씨족 내에서 상하 관계를 분명히 하기 위해 항렬(行列)을 정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항렬을 따지는 문화가 사라지는 추세다 보니, 굳이 돌림자를 정할 필요는 없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두 번째로, 중성적인 이름과 성별 구분이 가능한 남성적·여성적 이름 중 ‘특정 성별의 느낌이 있는 남성적·여성적인 이름을 더 선호한다(43%)’는 응답이 ‘특정 성별의 느낌이 약한 중성적인 이름을 더 선호한다(36%)’는 응답을 앞섰다. 남성은 남성적·여성적 이름을 더 선호한다는 응답이 54%로 높은 반면, 여성은 중성적인 이름을 선호한다는 응답이 49%로 더 높았다. 또한 연령대가 높을수록 남성적·여성적 이름을 선호한다는 응답이 높은 반면, 연령대가 낮을수록 중성적인 이름을 선호한다는 응답이 더 높았다.

마지막으로 한자 표기가 가능한 이름(40%)과 순우리말 이름(41%)은 큰 차이 없이 선호도가 비슷했다. 역시 성별과 연령대에 따른 차이가 확인됐는데, 남성은 한자 이름을 선호한다는 응답이 44%로 더 높은 반면 여성은 순우리말 이름을 선호한다는 응답이 46%로 더 높았다. 또한 연령대가 높을수록 한자 이름을 선호한다는 의견이 더 높았다.

돌림자로 정할 필요 없고(63%), 성별 구분이 가능한 남성적·여성적인 이름을 좀 더 선호(43%) 한자 이름(40%)과 순우리말 이름(41%) 선호는 엇비슷해

(단위 : %)



질문: 사람의 이름과 관련해, 귀하는 다음 중 어디에 더 가까우십니까?

응답자 수: 1,000명

조사기간: 2022. 06. 17. ~ 06. 20.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성별, 연령대에 따라 선호하는 이름에 차이 있어

(단위 : %)

	사례수 (명)	돌림자 정해야	돌림자 정할 필요 없어	중성적인 이름 을 선호	남성적, 여성적 인 이름 선호	한자로 표기할 수 있는 이름 선 호	순우리말 이름 을 선호
전체	(1,000)	28	63	36	43	40	41
성별							
남자	(497)	30	60	23	54	44	35
여자	(503)	27	66	49	32	36	46
연령							
18-29세	(173)	23	61	40	34	27	42
30대	(151)	22	67	42	37	32	44
40대	(184)	28	67	38	37	31	45
50대	(194)	23	70	36	45	47	38
60세 이상	(298)	39	54	29	53	52	38

질문: 사람의 이름과 관련해, 귀하는 다음 중 어디에 더 가까우십니까?

응답자 수: 1,000명

조사기간: 2022. 06. 17. ~ 06. 20.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4 성명학에 대한 인식

**응답자 절반 이상, 이름이 운명을 결정짓는다는 ‘성명학’에 동의하지 않아
다만, 좋은 이름과 나쁜 이름이 있다는 데 44%가 동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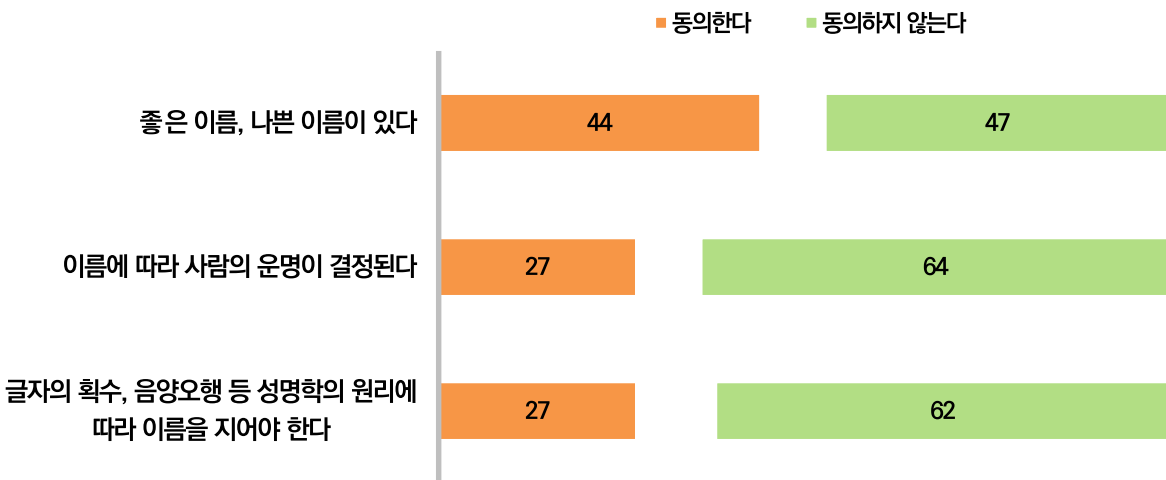
성명학(姓名學)은 음양설에 따라 성명의 좋고 나쁨을 판단하여 사람의 운명을 가늠하는 학문이다. 개인의 타고난 좋은 운세를 좋은 이름을 통해 더욱 극대화하거나, 반대로 좋지 않은 운세를 이름을 통해 극복하고자 하는 목적을 갖고 있다.

성명학과 관련한 주요 진술에 얼마나 동의하는지 물었는데, 응답자 절반 이상은 동의하지 않았다. ‘이름에 따라 사람의 운명이 결정된다(64%)’, ‘글자의 획수, 음양오행(陰陽五行, 태양·달·지구의 관계(음양), 만물의 기본 요소: 목木·화火·토土·금金·수水(오행)) 등 성명학의 원리에 따라 이름을 지어야 한다(62%)’는 진술에 동의하지 않는 응답이 60%를 넘었다.

다만, ‘좋은 이름과 나쁜 이름이 있다’는 진술에는 동의하는 응답(44%)과 동의하지 않는 응답(47%)이 3%포인트 차로 차이가 크지 않았다.

**응답자 절반 이상, ‘성명학’의 원칙에 동의하지 않아
다만, 좋은 이름과 나쁜 이름이 있다는 데 44% 동의**

(단위 : %)



질문: 사람의 이름과 관련해, 다음 각각에 대해 어떤 의견이십니까?

응답자 수: 1,000명

조사기간: 2022. 06. 17. ~ 06. 20.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여성, 40대, 개명 경험 있고 현재 본인 이름에 불만족하는 사람, 상대적으로 성명학의 주장에 동의하는 응답 높아

성별·연령대와 관계없이 ‘이름에 따라 사람의 운명이 결정된다’, ‘성명학의 원리에 따라 이름을 지어야 한다’는 데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높았다. 다만, 남성보다는 여성이, 연령대로는 40대에서 동의한다는 응답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비교적 높았다.

개명 경험과 본인 이름에 대한 만족도, 그리고 자녀의 이름을 어디에서 지었는지(혹은 지을 것인지)에 따라서도 인식에 차이가 있었다. 개명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본인 이름에 불만족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성명학의 주요 진술에 동의한다는 응답이 높았다.

또한, 자녀의 이름을 철학관이나 작명소에서 지었거나 향후 그럴 것이라고 답한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성명학의 주요 진술에 동의한다는 응답이 높았다.

여성, 40대, 개명 경험 있고 현재 본인 이름에 불만족하는 사람은 ‘성명학에 동의’하는 의견 상대적으로 높아

(단위 : %)

	사례수 (명)	좋은 이름, 나쁜 이름이 있다		이름에 따라 사람의 운명이 결정된다		글자의 획수, 음양오행 등 성명학의 원리에 따라 이름을 지어야 한다	
		동의한다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한다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한다	동의하지 않는다
전체	(1,000)	44	47	27	64	27	62
성별							
남자	(497)	39	51	22	68	23	65
여자	(503)	48	44	31	60	31	60
연령							
18-29세	(173)	30	54	23	62	15	68
30대	(151)	49	44	31	61	29	58
40대	(184)	50	39	34	56	39	51
50대	(194)	50	45	28	67	26	67
60세 이상	(298)	41	51	21	70	27	64
개명 경험							
있다	(71)	59	32	49	45	54	40
없다	(929)	42	48	25	66	25	64
본인 이름 만족도							
만족	(523)	43	49	25	67	24	64
만족도, 불만족도 아님	(345)	39	48	23	65	25	64
불만족	(132)	57	34	41	50	43	49
자녀 이름 지어준 (지어줄) 사람							
본인 및 배우자	(553)	42	50	22	69	21	70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141)	45	51	32	64	35	60
종교인	(33)	43	54	23	75	26	65
철학관·작명소	(190)	54	37	40	54	45	48
기타	(26)	-	-	-	-	-	-
모르겠다	(57)	22	37	14	45	6	41

질문: 사람의 이름과 관련해, 다음 각각에 대해 어떤 의견이십니까?

비고: 자녀 이름 지어준 사람(지어줄 사람) 중 ‘기타’ 응답자는 표본수가 적어 결과값을 제시하지 않음

응답자 수: 1,000명

조사기간: 2022. 06. 17. ~ 06. 20.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on.co.kr)

5 작명 주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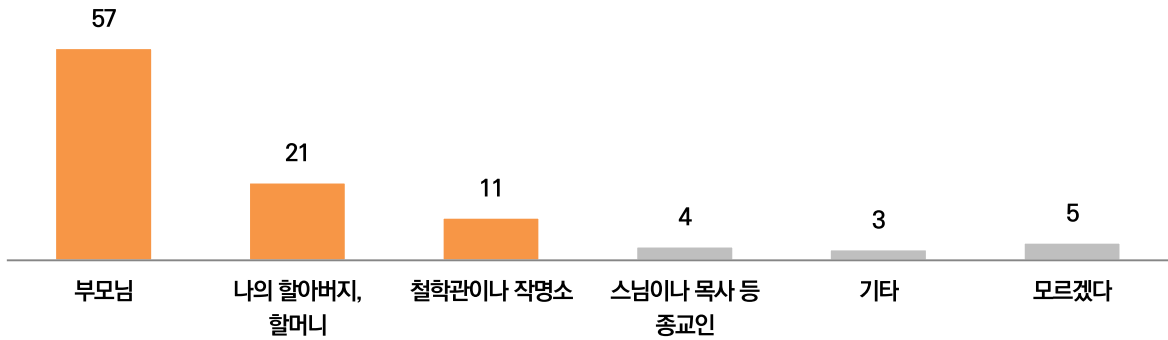
자신의 이름은 대체로 부모님이 작명(57%)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 절반 이상(57%)은 부모님이 자신의 이름을 지어 주셨다고 답했다. 나의 할아버지나 할머니(21%), 철학관이나 작명소(11%)에서 작명했다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연령대가 높을수록 부모님이 본인의 이름을 지어주었다는 응답이 많았고, 철학관이나 작명소에서 지은 이름은 18~29세에서 22%로 가장 높았다.

자신의 이름은 주로 부모님이 작명, 57%

다음으로 조부모(21%) > 철학관이나 작명소(11%) 순

(단위 : %)



철학관이나 작명소에서 지은 이름, 20대가 가장 높아

(단위 : %)

	사례수 (명)	부모님	나의 할아버지, 할머니	철학관이나 작명소	스님이나 목사 등 종교인	기타	모르겠다	계
전체	(1,000)	57	21	11	4	3	5	100
연령								
18~29세	(173)	36	23	22	7	4	7	100
30대	(151)	44	28	12	8	3	5	100
40대	(184)	49	21	16	3	4	7	100
50대	(194)	61	24	7	2	3	3	100
60세 이상	(298)	76	14	5	1	2	3	100

질문: 귀하의 현재 이름은 누가 지어주었습니까?

응답자 수: 1,000명

조사기간: 2022. 06. 17. ~ 06. 20.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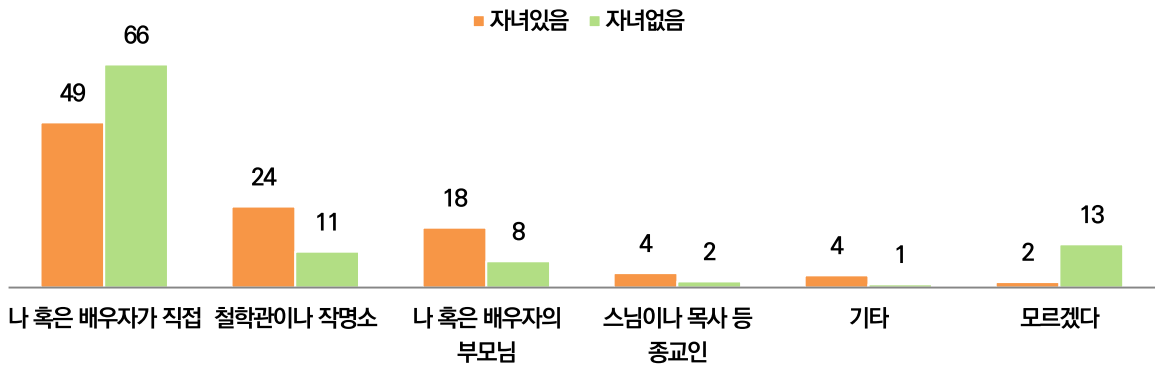
응답자 절반 이상, 자녀 이름은 나 혹은 배우자가 직접 짓는 것을 선호

자녀가 있는 응답자와 없는 응답자 모두 자녀 이름을 '나 혹은 배우자가 직접' 짓는 것을 가장 선호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철학관이나 작명소'를 선호했다. 3-40대 응답자는 자녀 유무와 상관없이 타 연령대에 비해 철학관이나 작명소에서 자녀 이름 짓는 것을 선호했다.

앞서 성명학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았다. 3-40대 응답자는 '좋은 이름 나쁜 이름이 있다', '이름에 따라 사람의 운명이 결정된다', '글자 획수, 음양오행 등 성명학 원리에 따라 이름을 지어야 한다'는 세 가지 진술에 타 연령에 비해 동의하는 응답이 높았다. 3-40대 중년층은 한 사람의 인생을 결정할 만큼 이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도 철학관·작명소를 이용했거나, 하겠다는 응답이 타 연령대에 비해 높았다.

자녀 이름은 나 혹은 배우자가 직접 짓는 것을 선호해
다음으로 철학관이나 작명소를 선호

(단위 : %)



자녀 이름은 나 혹은 배우자가 직접 짓는 것을 더 선호해

(단위 : %)

	나 혹은 배우자가 직접		철학관이나 작명소		나 혹은 배우자의 부모님		스님이나 목사 등 종교인		기타	
	자녀 있음	자녀 없음	자녀 있음	자녀 없음	자녀 있음	자녀 없음	자녀 있음	자녀 없음	자녀 있음	자녀 없음
전체	49	66	24	11	18	8	4	2	4	1
연령										
18-29세	-	67	-	9	-	8	-	2	-	2
30대	47	62	31	14	12	7	7	3	3	0
40대	45	55	32	17	12	14	5	2	3	0
50대	48	83	23	5	20	6	5	0	5	0
60세 이상	52	-	20	-	21	-	3	-	3	-

질문: 1. 귀하 자녀의 현재 이름은 누가 지어주었습니까? / 2. 향후 자녀를 갖는다면, 자녀의 이름은 누가 지으실 것 같습니다?

비고: 각 문항의 '모르겠다' 응답 제외. 18-29세 유자녀, 60대 이상 무자녀는 표본수가 적어 결과값을 제시하지 않음

응답자 수: (질문1) 자녀 있는 응답자 632명, 18-29세(n=4), 30대(n=56), 40대(n=131), 50대(n=161), 60대 이상(n=281)

(질문2) 자녀 없는 응답자 368명, 18-29세(n=169), 30대(n=95), 40대(n=53), 50대(n=33), 60대 이상(n=17)

조사기간: 2022. 06. 17. ~ 06. 20.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조사개요

구 분	내 용
모집단	• 전국의 만18세 이상 성인남녀
표집틀	• 한국리서치 마스터샘플(22년 5월 기준 전국 77만여 명)
표집방법	• 지역별, 성별, 연령별 비례할당추출
표본크기	• 1,000명
표본오차	• 무작위추출을 전제할 경우,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집오차는 $\pm 3.1\%p$
조사방법	• 웹조사(휴대전화 문자와 이메일을 통해 url 발송)
가중치 부여방식	• 지역별, 성별, 연령별 가중치 부여(셀가중) (2022년 3월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 인구 기준)
응답율	• 조사요청 7,236명, 조사참여 1,368명, 조사완료 1,000명 (요청대비 13.8%, 참여대비 73.1%)
조사일시	• 2022년 6월 17일 ~ 6월 20일
조사기관	• (주)한국리서치(대표이사 노익상)

한국리서치 주간리포트

여론속의 여輿론論

Hankook Research

